

‘2016 바른 국회 만들기’ 국회의원 후보 부적격자 2차 명단(가나다 순)

연번	성명	소속	내용	근거	비고
1	김경협	더민주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진주의료원 폐업은 마치 히틀러가 나치세력의 결집을 위해 유태인을 집단학살했던 것과 같은 비슷한 모양새.”(2013년 7월 13일)	反윤리 (막말논란)	1차발표 명단 대상자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북타령 하는 여당의원들도 김기종씨와 함께 정신감정을 의뢰해봐야 하지 않을까.”(2015년 3월 8일)	反윤리 (막말논란)	
2	김제남	정의당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대·중소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계류)에서 대형유통기업이 상품을 공급하고 상품발주 및 대금결제, 판매방법, 매장운영 등에 대해 실질적인 경영지도를 하는 소형마트도 준대규모 점포에 포함시켜 영업시간 제한 등 법적규제 를 하는 내용(2014년 3월 4일)	反시장경제	1차발표 명단 대상자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건설·운영에 관한 관리·감독법안(대안반영)은 원자력 비리를 막기 위한 법안이지만, 정수성위원의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13.12.31) 표절 의혹 (2014년 2월 11일)	反윤리	
3	김종인	더민주	1993년 당시 파산 직전의 동화은행에서 2억 1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년간 복역함. 경제민주화에 대한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는 당사자로서 언행불일치 논란, 그리고 비도덕적 행태로 비판을 받음	反윤리 反법치	비례후보 /2차 대상자
4	김학용	새누리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 최고위원들이 거친 말을 주고받다가 회의가 중단. 특히 이 과정에서 김태호 의원에게) “ 에이, XX야, 그만해. ”(2015년 7월 2일)	反윤리 (막말논란)	1차발표 명단 대상자
5	남인순	더민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12년 대선 당시 기초연금 공약을 거론하며) “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20만원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사기 쳐서 대통령 당선된 거 아닙니까? ”(2013년 11월 7일)	反윤리 (막말논란) 反법치 (명예훼손)	1차발표 명단 대상자
6	도종환	더민주	‘15.09.10~11 국정감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없는 교육부 공문 자료를 마치 국정화의 증거인 것처럼 주장 /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 대상 선정에서 임의로 야권 성향 작가를 배제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	反윤리 反법치 (허위사실유포의혹)	1차발표 명단 대상자
			‘15.10.13 (‘민중의 소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국정교과서는 학자가 원고를 만들어서 올려도 저작권이 교육부에 있어 (정부)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 ”	反윤리 反법치 (허위사실유포의혹)	

연번	성명	소속	내용	근거	비고
7	문대성	새누리	새누리당 국회의원 당선 이후, 박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 이 있었고, 이에 대한 국민대 예비조사 결과 문의원의 논문이 상당부분 표절된 것으로 판정·발표됨. 결과 발표 직후 탈당했다가 2014년 2월 다시 새누리당에 복당해 논란이 됨(2016년4월21일)	反윤리 反법치	2차 대상자
8	문병호	국민의당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계류)에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군용전기통신(작전수행에 위한 전기통신)’ 감청 승인권을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넘겨 감청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군정보수사기관도 통제하도록 함(2015년 7월 21일)	反자유민주주의 反안보 反법치	1차발표 명단 대상자
			국회법 일부개정(계류)안에서 국정원 소관 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지원관실 설치해 국정원에 대한 사실상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정보기관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함 (2015년 10월 26일)	反자유민주주의 反안보 反법치	
9	민병두	더민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에 선임된 임원 114명을 수록한 일명 ‘친박인명사전’을 편찬하며 ‘낙하산 인사’라는 주장을 담았지만 불명확한 사실을 게재해 정치 불신을 조장(2014년 3월 11일)	反윤리 反법치 (불명확한 사실로 정치불신 조장)	2차 대상자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민간경상보조사업 현황’ 자료를 근거로 “지난 2년 동안 대북전단살포에 참여한 4개 단체가 총리실로부터 2억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으나, 그 중 두 개 단체는 대북전단살포를 한 적 없는 북한 인권단체로 밝혀져 사실 미확인, 허위사실 유포 의혹(2014년 10월 24일)	反윤리 反법치 (허위사실유포)	
			민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와 관련된 내부규정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 그러나 내부규정을 만들거나 경영승계의 경우 기업이 자율로 판단할 사항이고,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을 만드는 것은 지나친 기업의 경영권에 규제가 될 수 있음(2015년 10월 26일)	反시장경제	
10	박경미	더민주	2004년 「대한수학교육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중국 수학교육과정의 내용과 구성방식의 특징’은 같은 해 홍익대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을 통과한 강모씨의 학위논문 ‘중국의 수학교육 과정 분석 및 연구’를 표절한 의혹 논란(한겨레 2016년 03월 22일)	反윤리 反법치	비례후보 /2차 대상자
			2007년 제자의 석사논문을 학회지에 본인 이름으로 무단 게재해 제자논문 표절 의혹 논란(한겨레 2016년 03월 20일)	反윤리 反법치	
11	박영선	더민주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계류)에서 국가보안법 사범에 대한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박탈 (2013년 9월 2일)	反자유민주주의 反안보 反법치주의	1차발표 명단 대상자

연번	성명	소속	내용	근거	비고
			(국정원 댓글조사 특위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을 향해) “국회의원에게 이럴 수 있어? 저게 국정원장이야? ”(2013년 8월 5일)	反윤리 (막말논란)	
12	박지원	국민의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계류)에서 대기업이 진출한 ‘한식뷔페’ 등을 규제하고,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에 대한 관리 권한 강화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지나치게 시장을 규제함(2015년 7월 24일)	反시장경제	1차발표 명단 대상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의 자진사퇴 혹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당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위원장을 맡은 후 트위터를 통해언론인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 국정원 장 후보 이병기 전대사가 내정되자) “총리 후보에 문창극 전 주필? 국정원장 후보는 이병기 전 대사? 극우 꼴통 세상이 열립니다. ” “문창극 총리후보? 제2의 윤창중 될 것 같아 참으로 두렵습니다.”(2014년 6월 23일)	反윤리 (막말논란)	
13	서영교	더민주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계류)에서 국민의 통신비밀과 사생활자유를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수사기관의 정당한 감청권한을 지나치게 축소 (2012년 11월 2일)	反자유민주주의 反안보 反법치	1차발표 명단 대상자
			(국회 대정부질문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가리키며) “ 친일파 대통령에 친일파 총리지명은 친일파 내각 을 세운 것으로 이는 제2의 경술국치.”(2014년 6월 18일)	反윤리 (막말논란)	
14	서청원	새누리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양정례, 김노식 의원 측에서 공천현금 32억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 판결 1년 6개월 징역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2009년 5월 14일)	反윤리 反법치	2차 대상자
			서의원이 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지역공동체 회복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맞춰 그들을 지원할 법적근거를 만든다고 하지만, 자력으로 조성되고 있는 마을기업은 이미 그 자체로 활성화되고 있는데 굳이 법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마을기업이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또 다른 형태인데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어긋남(2015년 11월 12일)	反시장경제	
15	설훈	더민주	(국회의장·상임위원장 연석회의) “청와대에서 7시간 동안 뭐했냐. 대통령이 연애 를 하지 않았겠지마는 안 했다면 더 큰 문제이다.”(2014년 10월 17일)	反윤리 (막말논란) 反법치(명예훼손)	1차발표 명단 대상자

연번	성명	소속	내용	근거	비고
				)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자니운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를 향해) “연세가 많으면 판단력이 떨어져 쉬게 하는 것이다, 79세면 은퇴해 실 나이 아니냐. ”(2014년 9월 12일)	反윤리 (막말논란)	
16	신경민	더민주	(광주당원보고대회에서 NLL 대화록 관련) “이 대화록은 김무성 지능으로는 도저히 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국정원장이란 자가 NLL 문건을 들고 와서 국회에 와서 뿌렸습니다. 이런 ‘미친 X’이 어디 있습니까.”(2013년 7월 8일)	反윤리 (막말논란)	1차발표 명단 대상자
17	신기남	민주당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로스쿨 원장을 만나 압력을 행사했다 는 의혹을 받음(2015년 11월)	反윤리	2차 대상자
			장남이 국회추천 국비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06.07.09~30)을 다녀와 특혜 의혹 논란(2015년 12월)	反윤리	
			딸이 인하대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졌지만, 합격선이 전체적으로 낮아져 졸업을 하게 되면서 신의원의 합격 기준을 바꾸는데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2015년 12월 6일)	反윤리	
18	심상정	정의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 중 (민중 총궐기 참가자에 대한 경찰의 대응 수위를 놓고 여야 간의 의견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생존권을 위협받는 암울한 민생 현실 때문에 정치권에 호소하기 위해서 시위를 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번 민중 총궐기 배후는 박근혜 정부라고 본다.”라며 불법 시위를 옹호하고 그 원인을 오히려 정부 탓으로 돌림(2015.년 11월 17일)	反자유민주주의 反법치주의	2차 대상자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국민 평균 월급 30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내놓음. 현 경제 상황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정책을 내놓아 국민들을 혼란하게 함. 인기영합주의(2016년 02월 17일)	反시장경제	
19	심재권	더민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계류) 2건에서 대기업 점포를 신규로 열 때, 지방자치단체의 제한권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하여 시장을 과도하게 규제함 (2013년 3월 18일 /2015년 2월 13일 발의)	反시장경제	1차발표 명단 대상자
20	안민석	더민주	(국회 본회의 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 중)“ 도대체 (총리는) 아는 게 뭐예요. ”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해할만한 말씀을 드렸는데,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2012년 6월 13일)	反윤리 (막말논란)	1차발표 명단 대상자
			(경기 오산 호남향우회 야유회에서 향우회 회원 180여명과 동석한 자리에서 전북 부안군수에게) “ 군수께서 노래하시면 부안에 예산 100억 원을 내려주겠다. ”(2015년 8월 24일)	反윤리 (갑질논란) 反법치 (권한남용)	

연번	성명	소속	내용	근거	비고
21	우원식	더민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계류)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까지 유급휴일·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시장규제이자 포폴리즘(2014년 10월 27일)	反시장경제	1차발표 명단 대상자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계류)에서 지자체가 대규모점포 등의 상생품목까지 판매 제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과도한 시장규제(2013년 12월 2일)	反시장경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NLL 대화록 관련 청와대를 비판하며) “박대통령이 사주-묵인-방조했으며, 사초를 열람하고 무오사화를 일으킨 연산군과 무엇이 다른가.”(2013년 6월 26일)	反윤리 (막말논란)	
22	유승민	무소속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계류)은 ‘사회적 경제’란 사실상 반자본주의와 협동조합주의의 결합의 형태로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반시장적인 법안(2014년 4월 30일)	反시장경제 反자유민주주의	1차발표 명단 대상자
23	유승희	더민주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계류)은 개인이 불법적으로 획득해 공개한 정보라도 공익성·공공성을 갖춘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위배할 소지가 있음(2013년 3월 18일)	反자유민주주의 反법치주의	1차발표 명단 대상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계류)은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여 사실상 수사를 무력화할 수 있음(2015년 11월 16일)	反자유민주주의 反안보 反법치주의	
24	윤상현	무소속	(김무성대표를 두고 지인과의 통화에서) “김무성 죽여 버려 이 XX. 다 죽여. 그래서 전화했어”(중략)“숙아내 공천에서 떨어뜨려 버려.. 내일 처야 돼. A형한테(도 말하고), B형(과도 같이 의논) 해가지고...”(2016년 2월 27일 통화 녹취. 공개는 2016년 3월 18일)	反윤리 (막말논란)	1차발표 명단 대상자
25	윤후덕	더민주	LG디스플레이에 자녀 입사과정에서 전화청탁을 하고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음(2015년 8월)	反윤리	2차 대상자
			윤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서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접경 지역을 드나는 단체의 물품 등의 반출·반입의 규정을 명확히하고 전단살포의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민간의 행위를 과도하게 규제할 수 있음(2014년 11월 12일)	反자유민주주의 反법치주의	
26	은수미	더민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계류)은 경영권에 관한 사항도 노동쟁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인정(2015년 4월 6일)	反시장경제	1차발표 명단 대상자

연번	성명	소속	내용	근거	비고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NLL 회담록 공개 직후)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합의하지 않는 한 본회의에 걸어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무슨 개XX인가. 개처럼 목줄에 끌려 들어가야 하느냐.”(2013년 6월 25일)	反윤리 (막말논란) 反안보	
27	이연주	더민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계류)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만들어 공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나친 시장 간섭(2015년 8월 12일)	反시장경제	1차발표 명단 대상자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계류)은 SSM 점포 등 설치시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외무휴업일을 2일에서 4일로 확대 (2013년 9월 13일)	反시장경제	
			(정론관 국회 브리핑에서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진주의료원 폐업조례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한 것에 대해) “ 제 버릇 개 못준 다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 폭정”(2013년 4월 13일)	反자유민주주의 反법치주의 反윤리 (막말논란)	
28	이종걸	더민주	(트위터에서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를 향해) 그년 (트위터 전문: ‘공천현금’이 아니라 ‘ 공천장사 ’입니다. 장사의 수지계산은 직원의 몫이 아니라 주인에게 돌아가지요. 그들의 주인은 박근혜 의원인데 그년 서슬이 퍼래서 사과도 하지 않고 얼렁뚱땅...아하! ‘그년’은 ‘그녀는’의 줄임말입니다. 나름 많은 생각을 하였지요, 사소한 표현에 너무 메이지 마세요, ‘그년’과 ‘그녀는’은 같은 말입니다.)(2012년 8월 5일)	反윤리 (막말논란)	1차발표 명단 대상자
			(정책 조정 회의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 서청원 의원이 야당 의원을 화적폐에 비유하고 이정현 의원이 현재 한국사 교과서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적화통일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한 것에 대해) “이분들을 그냥 친박이 아니라 친박 실성과 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전체 책을 보면 그런 기운이 느껴진다고 답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무속인이 아닙니다. ”(2015년 10월 29일)	反윤리 (막말논란)	
			(당원내대책회의 대통령의 경제위기 관련 발언에 대해) "경제 심리를 철저하게 선거용으로 이용하는 데에서 '선거의 여왕'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병신입니까? "(2015년 12월 22일)	反윤리 (막말논란)	
29	이학영	더민주	(필리버스터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이 자리 서기까지 60년이 걸렸습니다. 국정원에게 국민을 무차별 시찰하게 하는 법을 허용 하면 내 육십년 인생이 죽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다시는 민주국가가 안될겁니다”(2016년 2월 28일)	反윤리 (허위사실)	1차발표 명단 대상자

연번	성명	소속	내용	근거	비고
			(23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서)“ 아만적인 고문 장면 어느 시대의 것이냐 ”며 “ 항일 독립운동 악행을 연상케 한다 ”고 강력 비판함(정갑윤 국회 부의장이 “테러방지 법과 관련 있는 발언만 해달라”며 이학영 의원의 발언을 제지함. 2016년 2월 28일)	反윤리(막말논란)	
30	이해찬	무소속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 중 (진행자가 북한인권법 국회 상정문제를 묻자) “ 북한 인권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문제다. 다른 나라의 국내 정치 문제에 깊이 주장하거나 개입하는 건 외교적 결례 이며 국가 간에 서로 내정에 관련된 걸 간섭하는 것은 외교적 관행으로서는 바람직한 건 아니다.”(진행자가 우리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자) “ 그건 우리 헌법이며 세계적으로 다 인정하고 있다. ”(2012년 6월 4일)	反안보	2차 대상자
			당원 보고대회에서 “ 박정희가 누구이고 누구한테 죽었나. 박씨 집안은 안기부, 정보부와 그렇게 인연이 짙긴가. 이제 끊어 달라. ”(2013년 7월 14일)	反윤리 (막말논란)	
31	장병완	국민의당	장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은 모든 국가기관은 반기별로 감청장비의 보유현황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를 반기별로 국회 소관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국정원 등 비밀보호가 철저해야 하는 기관의 장비까지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되어 모든 감청장비를 백일하에 노출시키게 됨 (2015년 10월 14일)	反자유민주주의 反법치주의 反안보	2차 대상자
32	진선미	더민주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계류)은 국정원 직무범위를 국가안전보장과 남북통일 위한 국내 보안정보 및 해외정보 수집과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보안 업무로 한정, 기관 명칭도 ‘통일해외정보원’ 으로 변경(2013년 10월 8일)	反자유민주주의 反안보 反법치주의	1차발표 명단 대상자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원 여직원) 사건 당시 여직원이 오피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 국정원 직원 이었고, 그 두 사람이 안에서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가며 증거들을 인멸했다. ”고 허위사실을 주장한 혐의 (2013년 7월 6일)	反윤리 反법치 (허위사실무효) * 15.02.04 벌금 5백만원에 약식 기소	
33	진성준	더민주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국회법 일부개정안(계류)은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조정하고, 기관의 명칭도 ‘통일해외정보원’ 으로 변경/국회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위원회 신설해 국정원 감독 강화(2013년 6월 27일)	反자유민주주의 反안보 反법치주의	1차발표 명단 대상자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안(계류)에서 한일 간 군사정보 MOU를 체결하려 했던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위해 외국-국제기구에 대하여 군사기밀을 제공·설명하는 경우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에 해당하는 약정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부에 대한 과도한 간섭(2015년 5월 29일)	反법치주의	

연번	성명	소속	내용	근거	비고
34	최민희	더민주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계류)에서 감청의 정의에 소프트웨어 포함, 소프트웨어도 인가, 신고, 허가 등 규제 신설해 실질적인 수사를 불가능하게 함 (2015년 8월 28일)	反자유민주주의 反안보 反법치주의	1차발표 명단 대상자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서)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지난해 5월 몰카(몰래카메라) 시계 2개를 구입했다. 정 윤희 문건에 나와 있는 VIP(박근혜 대통령) 눈 밖에 난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 아닌지 의심이 된다.”(2014년 12월 16일)	反윤리 (막말논란)	
35	홍익표	더민주	트위터를 통해 “대선결과는 무효다. 아버지 박정희는 군대를 이용해서 대통령직을 찬탈했고,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도둑질했다.”(2013년 4월 23일)	反윤리 反법치 (막말논란)	1차발표 명단 대상자
			국회에서 “귀태(鬼胎)의 후손들이 한국과 일본의 정상으로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입니다.”(2013년 7월 11일)	反윤리 (막말논란)	
			(페이스북을 통해 故 김유민양 아버지 김영오씨의 가정사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유민 아빠를 향한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과 여당의 인신공격과 음해공작이 도를 넘어 국정원의 개입설도 나온다. ‘조중동’의 기사 행태는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나 북한과 같은 독재권력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쓰레기 기사. 정부·여당은 차마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을 서슴없이 저지른 최악의 패륜 집단.”(2014년 8월 25일)	反윤리 (막말논란)	